

제2대 고양시청소년의회 (본회의 - 5분 자유발언)

- 고양시 미혼모·부자 가정 지원요청 -

고양시청소년의회 문서영 의원

존경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백석1동 인권위원회 소속 문서영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노하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고양시 미혼모·부 지원 시스템의 문제점과 경기 북부를 대표하는 복지도시가 되기 위해 미혼모·부 지원의 중요성에 대하여 발언 하고자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저출산 문제가 대두되는 반면에 해외로 입양되는 한국인 아이들의 명수는 세계에서 2위를 달린다고 합니다. 영유아 위탁 센터에 따르면 이 아이들은 대부분 미혼모·부 들이 책임지지 못하겠거나 자신들의 삶이 힘들어서 맡기고 가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합니다.

이에 미혼모·부들의 자립지원을 확대하려는 정책을 제안하려 했지만 고양시 내에 이들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조차 없어 지원을 어느 정도 해야 하는지, 예산을 얼마나 편성하여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실정입니다. 우선적으로 고양시 내에 미혼모·부 가정이 어디에, 얼마나 분포하여있는지를 조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 지속적인 홍보와 인식개선 캠페인 등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미혼모·부가 갖는 사회적 편견을 사라지게끔 신경 써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고양시 내에서 미혼모로 살아간다는 것은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실행중인 정책으로 성인이자 아동 1인당 월 13만원 지급, 청소년 한부모는 월 30만원 내외로 지급하는 것이 경제적 지원의 한계선입니다. 객관적으로 생각해봅시다. 과연 경제적 자립 능력도 없는 청소년이 월 30만원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또한, 아이로 인하여 학업을 중단하게 된 고양시민 청소년 미혼모·부들은 자신들이 더 공부하길 원할지라도 임신, 양육으로 인하여 교육받기가 힘든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이들을 위하여 위탁 교육기관을 고양시 내에 만들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학업이 중단된 청소년 미혼모·부들에게 학업을 지원해주는 경기도 내의 기관은 경기 남부 수원에 있는 홀트고운학교가 유일합니다. 청소년이기에 자동차도 몰 수 없고 면허가 있어도 아이 때문에 2시간이나 걸리는 수원까지 이동할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청소년들을 위하여, 미래의 더 나은 인재를 위해서라도 이들의 교육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단체를 고양시 자체적으로 운영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더군다나 미혼모·부자가 현재상황의 위기를 극복하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를 시행하는 미혼모부자 거점기관은 경기도 남부 안산에 단 하나 존재할 뿐 북부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홀로 아이를 데리고 있는 것도 힘든데, 고양시민이 언제 또 안산까지 아이들 데리고 가서 지원을 받겠습니까. 또한 일정기간의 주거와 심리 치료 지원 등을 해주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은 경기 남부인 수원 한 곳뿐입니다. 게다가 이 복지시설은 미혼모·부만 지원하는 것이 아닌 조손가족 등 다른 한부모 가족들을 포함하여 실시되는 시설로써 실질적으로 미혼모·부 가정의 삶을 지원받기 힘듭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미혼모·부 지원 정책을 통하여 고양시가 추구하는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의 모습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경기북부를 대표하는 복지도시로써 미래사회에 단단히 발돋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 수 있기를 간곡히 요청하며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